

[사회]

‘5·18 항쟁 지도부’ 26년만에 도청 재입성

‘그 날 그 합성’ 다시 퍼지다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80년 5월 당시 항쟁지도부가 자리했던 옛 전남도청에 26년 만에 ‘입성’했다.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박석우 5·18기념재단 이사장)는 지난달 초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2층(과거 도청 기지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행사위는 기념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6월초까지 이곳에 거주한다.

행사위는 원래 80년 5월 당시 항쟁 지도부가 사수했던 옛 도청 본관에 사무실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넓은 공간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별관을 선택했다.

본관 1층~3층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광주, 한반도...ing’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5·18을 형상화한 조각과 사진, 영상물, 그림, 만화, 문양 등 다양한 예술품이 방문객들에게 5월의 뜨거웠던 열기를

기념행사위 사무실로 부활 열사들 목소리 들리는 듯 시민들 “가슴 뭉클하다”

를 전하게 된다.

또 같은 기간 본관 1층에서는 방문객들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나도 시민군’행사가 열린다. 이곳에는 시민군 지도부실과 상황실을 재현, 윤상원 열사와 박용준 열사 등이 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탱크 소리를 들으며 총을 움켜쥐었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윤 열사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도 느낄 수 있겠다.

80년 5월21일~27일까지 옛 도청에

서 항전을 벌였던 시민들의 감회도 새롭다. 행사위 상설기획단의 장선호(51·5·18민중항쟁추진위원회 조직국장)씨는 “5월21일 계엄군이 첫 발포했을 때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맞서다 왼쪽 가슴에 총을 맞았다”면서 “우리들의 ‘요새’가 4반세가 흘러 행사위의 사무실로 부활한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옛 도청은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 중이다. 하지만 시민군이 민주화를 위해 붉은 피로 땅을 적었던 본관(연면적 505평)과 상무관(192평), 전남지방경찰청 본관(875평) 등은 철거되지 않고 5·18 희생자들의 흔과 함께 살아 숨쉬게 된다.

한편 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 기획단은 전남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해 1층은 5·18추모공간, 2~3층은 전시·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물러간 뒤 전남도청을 점수한 시민·학생들이 상황실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항쟁 지도부가 자리했던 옛 전남도청에 26년만에 ‘입성’한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우산 필요 없어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5월 9일
(음 4월 12일)
◇전국날씨

서울	차차 흐려짐	15~25
부산	차차 흐려짐	14~21
대구	차차 흐려짐	14~19
대전	차차 흐려짐	13~20
광주	차차 흐려짐	15~24
전주	차차 흐려짐	13~21
제주	차차 흐려짐	13~21
인천	차차 흐려짐	13~21
충주	차차 흐려짐	13~21
청주	차차 흐려짐	12~20
포항	차차 흐려짐	14~25
울산	차차 흐려짐	13~22
경주	차차 흐려짐	14~23
안동	차차 흐려짐	15~26
영주	차차 흐려짐	13~25
의정부	차차 흐려짐	15~26
고양	차차 흐려짐	15~26
성남	차차 흐려짐	15~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11:43 썰물 < 04:58
목포 밀물 < 17:19 썰물 < 17:19
여수 밀물 < 06:44 썰물 < 00:34
여수 밀물 < 19:14 썰물 < 12:52

▲해돋이 05:34 ▲해질 19:24 ▲달돋이 15:38 ▲달질 03:2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0	16/25	12/26	14/22	12/25	11/26

‘위험한’ 국민방독면

2002년 9월 이전 생산 41만개 전량 불량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 보급을 목표로 지급한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3천617개의 화재용 정화통이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방독면 중 불량품은 이제까지 보급된 116만4천892개 중 35.5%에 해당한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최근 검사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유독가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화재 발생 3분 이내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을 초과하는 불량품으로 판정됐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려면 최소한 3분까지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방독면은 성능이 기준에 미달돼 유독가스에 질식, 오히려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불량으로 판정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을 제거하고 예비로 보관 중인 화재방용 정화통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러나 “2002년 12월 이후 생산된 국민방독면 58만7천467개는 모두 정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



‘스승의 날’을 앞두고 43년만에 모교인 함평 향교초등학교를 찾은 이용섭 행자부장관이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함평=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꿈을 갖고 항상 도전하라”
이용섭 행자부 장관 모교서 1일 교사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모교인 함평군 대동면 향교초등학교 ‘1일 교사’로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학교 청림관(靑林館)에서 1~6학년생 180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역사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쓰여져 왔다”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가슴에 건디는 나무는 뿌리를 땅 밑까지 깊게 내리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잔디 운동장과 육상 트랙을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출신인 이 장관은 1963년 향교초등학교(제13회)를 졸업했으며, 학다리 중·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거쳐 행정고시(제14회)에 합격했다. 관세청장·국세청장·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후 지난 3월 행자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완도 앞바다 역시 ‘청정’

속초·서귀포 다음 깨끗
25개 해역 COD 조사

완도 앞바다의 해역이 속초·서귀포에 이어 수질이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25개 주요 해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속초 해역이 0.7(mg/l)로 가장 낮았다고 8일 밝혔다.

속초를 포함해 동해(0.8)·주문진(0.9)·영일만(0.9) 등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1 이하’의 COD 수치를 기록했다.

서해안은 목포 1.3을 비롯, 인천(1.5)·아산(1.4)·대안(1.2) 등 1.2~1.5 범위의 분포를 나타냈다. 남해안에서는 완도(0.9)·서귀포(0.8)·제주(0.9) 등이 ‘청정 해역’으로 다시 확인된 반면 마산(2.8)·진해(2.0)·통영(1.7) 등은 비교적 수치가 높았다. 특히 마산은 전체 25개 측정 해역 가운데 가장 수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주요 해역별 오염도 현황 (단위:mg/l)	서해안	COD	남해안	COD	동해안	COD
인천	1.5	울산	1.5	속초	0.7	
아산	1.4	온산	1.3	통영	0.8	
대안	1.2	완도	0.9	주문진	0.9	
군산	1.5	여저만	1.5	삼척	1.0	
전주도	1.4	광양만	1.4	강구	1.0	
목포	1.3	여수	1.3	영일만	0.9	
		시천	1.3			
		통영	1.7			
		마산	2.8			
		진해	2.0			
		부산	1.4			
		제주	0.9			
		서귀포	0.8			

첨단산단 광로 8.3km 신설

건교부, 2단계 광역 교통개선대책 확정

건설교통부는 8일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광주 첨단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광주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의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765억원을 투입해 광로 3-15호선(3.8km)과 광로 2-9호선(2.3km) 등 총 8.3km 도로를 신설하고 62호 및 63호 광장을 입체화할 계획이다.

또 광역버스 3개 노선(광주~나주, 담양, 화순)과 사업지를 경유하는 도시형버스 8개 노선을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2007년도 수능시험 합격률 목표도 하는 강좌

특수한격생이 입증하는 출제 경향에 가장 정통한 교원임용강좌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과내영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공과 강의록 내역 선정 강좌! -----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교육학, 전공: 유아교육, 전공: 미시학, 전공: 유아교육, 전공: 미시학, 전공: 유아교육, 전공: 미시학, 전공: 유아교육, 전공: 미시학

교육학개강 5월 6일

www.naeyoung.com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생략!!!

노랑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김재규 경찰학원 탄생

개강 5월 8일

김재규 경찰학원 최고의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 어: 오순아 교수
*형법: 윤경근 교수 *형소법: 윤경근 교수

김재규 경찰학원 전문 시스템

• 기본이론(오전)+문제풀이(오후)+기초복합
• 기본반, 심화반 선별 맞춤수강, 전용 자습실 사용
• 다년간 경찰수험생들을 관리하고, 전문화된 학습 시스템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김재규 경찰학원 드림팀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 시범반입니다.

www.police3112.com

경찰공무원의 꿈을 실현하는 곳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전남여고앞 236-3112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 5월 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로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위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특·월·출·신 수석 승 은 명 96.7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원 일·전원·월·목·/ 7·하절·도청·2·관공

개강: 5월 1일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위 222-4560